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32호

성령강림 후 열 번째 주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주일

2020년 8월 9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성령의 빛 | 정명오 편집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D. Buxtehude)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31장(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 후 열 번째 주일이자,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고전 6:11), 영광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요 4:24).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회 중: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목 사: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회 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목 사: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회 중: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목 사: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회 중: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아멘(시 105:1-8).

경배찬송 582장(어둔 밤 마음에 잠겨)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욥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응답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경동찬송 12장) 다함께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 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 하신(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응답송	회 중: 아멘. 할렐루야(경동찬송 6장) 다함께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2번)
말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7:1-4 1부: 이인재 집사 2부: 이석한 집사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열일곱 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 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늘그막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 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1절 다함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서신의 말씀	로마서 10:5-15 1부: 조영혜 집사 2부: 변윤신 집사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 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 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 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2절 **다함께**
생수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에 기쁜 샘이 솟아나리라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14:22-33 **목사**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해쳐 보내셨다. 무리를 해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에 그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

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3절 **다함께**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고순희 장로**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M. W. Moody) **1부: 유희엽 집사**

내 평생에 가는 길(Arr. Daine Bish) **2부: 이재은 집사**

설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455장(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경동찬송 37장) **다함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광복절 노래** **다함께**

1. 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 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영긴 자취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삼어 잘 가꿔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 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후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H. Rinck)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 ▶장례: 故 조상근 성도(향년 92세/조미현 집사부친 · 이내영 집사장인, 이민주 교우 · 강동우 교우 외조부, 7월 28일(화) 소천, 7월 30일(목) 발인)
- ▶취임: 이광택 집사(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 ▶공연: 배우진 집사(연극 '레미제라블' 7일(금)-16일(주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2.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 ▶주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골 2:28-29, 요 17:22-23, 엡 4:1-3)
- 1) 유치부: 다음 주일(16일) 오전 9시 30분 교육관 203호
- 2) 어린이부: 오늘(9일) 오전 9시 30분 장공채플실
- 3) 중 · 고등부: 다음 주일(16일) 오전 9시 30분 여해문화공간 *온라인 병행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및 우편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학교 성경 학교 및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 경청과 동행하기

- ▶내용: 신앙주제탐구모임, 성경읽기모임, 미혼모 돕기 봉사모임
- ▶방식: 온라인(Zoom) 진행 *단 미혼모 돕기 봉사모임은 오프라인 진행
- ▶대상: 관심 있는 청년 교우 누구나
- ▶문의: 박동혁 총무

4. 다음 주일(8월 16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조규곤 장로	1부	김일수 집사 · 김혜선 집사	2부	이재열 집사, 이신화 집사	

특별봉헌 7월 26일

감사헌금

강신재(생일), 박진영(휴가 감사), 길지용 · 박경애(주님의 은혜), 김민정(장/십일조), 김범수(감사), 김병태 · 김수미(늘 함께 하심), 김수평 · 임문규(범사), 김영걸(감사), 김영문(감사), 김지욱(십일조), 김춘자(김/장례 감사), 박연길 · 박수미(십일조), 박찬순(십일조), 배영호 · 박영조(십일조, 하나님 은혜), 신승진 · 임성(감사), 신호진(십일조), 안성민, 안지민(감사), 이광수(감사), 이동환(새 임지로 인도하심), 이석한 · 변윤신(감사), 채수일 · 김정숙(범사), 허보람(최영덕 생일 감사, 무기명(감사), 무기명(감사))

■ 예배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누가복음서 18:14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누가복음서 18:9-14	진실한 기도	박재준 전도사
중·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누가복음서 18:9-14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로마서 3:21-31	아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박선교 목사

주일예배(1, 2부) 참여방법

사전접수: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교회사무실 T. 02-2274-0161)

주일예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찬송가와 성경책 개인 지참

개인 마스크(KF80 이상 권유) 필히 착용 후 입장

주일예배, 수요 성경인물 탐구 영상 안내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

다음 주일 말씀

8월 16일(성령강림 후 열한 번째 주일)

성 경: 구 약(창세기 45:1-8)

서신서(로마서 11:1-2a, 29-32)

복음서(마태복음서 15:10-20)

설 교: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채수일 목사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품에 늘 안아 주시니
2.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서라
3.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후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얹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2.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즐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3. 맑은 샘 줄기용 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별판이 눈앞에 활짝핀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되어 타거라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자 그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협약한 세상을 이길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 주모습 내눈에 안보이며 그음성 내귀에 안들려도
내영혼 날마다 주를만나 신령한 말씀 늘배우도다
3. 가는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 주예수 세상에 다시오실 그날엔 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형상을 다함께 보며 주찬양하리
(후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경동찬송 37장)

1.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그 이름 그 나라 땅위에 오소서 거룩한 그 이름
2. 일용할 양식 주소서 거룩한 그 이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거룩한 그 이름
3. 유혹을 멀게 하소서 거룩한 그 이름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거룩한 그 이름
4. 나라와 권세와 영광 거룩한 그 이름 하늘 아버지께 있도다 거룩한 그 이름
5.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그 이름